

“한때 작업 못해…지금 좋아하는 ‘파꽃’ 몰입”

‘파꽃의 화가’ 최향 작가 33회 개인전

14일부터 광주 동구 이화갤러리서

100호 등 20여점…서울전 성료도

홍대 미대 졸업 50주년 기념 의미

요즘 시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그 단어는 ‘파’가 아닐까 싶다. 파면 소식 이후 SNS 상에 ‘파면’을 많이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파면을 상징화하기 위해 파면에 파를 송송 질라 넣어 짧은 것 말이다.

이처럼 그가 선택한 파꽃이라고 하는 소재가 워낙 독특한데다 기성 세대 여성들이라면 식탁의 요리 재료로 쓰이는, 익숙함이 있기는 하다. 화단에는 일찍부터 수많은 꽃들 중에 이런 친숙한 이미지의 파꽃을 선택해 작업해온 화가가 있다.

졸곧 ‘파꽃의 화가’로 불려온 최향 작가가 그다. 최 작가는 25년 전부터 파꽃을 그려왔다. 지역 안팎의 화단에서 파꽃하면 그가 떠오르는 이유다.

단순한 파꽃이 아니라 삶이 투영된 시간들이 얹혀진 듯해 그 파꽃 작품들은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고도 남는다.

2000년경부터 파꽃 작업을 시작했지만 2007년에 파꽃 그림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2007년 나인 갤러리 소속으로 서울화랑아트페어에 참가해 진화랑과 연결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당시 그의 파꽃 작품을 본 진화랑 측이 그림이 독특하고 참신하다는 이유로 그를 초대하면서 파꽃은 당당하게 외연을 넓힐 수 있었다.

지난달 G&J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때 자신의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줄을 서는 관람객들을 보며 감동도 받았고, 에너지도 얻은 듯 보였다. 작가가 “행복해지더라”는 짝막한 소감을 전했다.

그 기운을 이번 전시에 고스란히 투영하고자 하는 듯하다.

작가는 화가가 의식도 가져야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실했다.

“대학 졸업한 지 올해 50년을 맞았더군요. 그동안 화가로 숨차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고, 저도 이제 나이라는 것을 먹게 됐죠. 축복이지만 죽음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때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져 그림작업에 몰입하지 못한 때도 있었네요. 그리는 사이 예전에는 그림을 판매하기 위해 그랬지만 지금은 온전하게 내가 좋아하는 파꽃을 무채색으로 그리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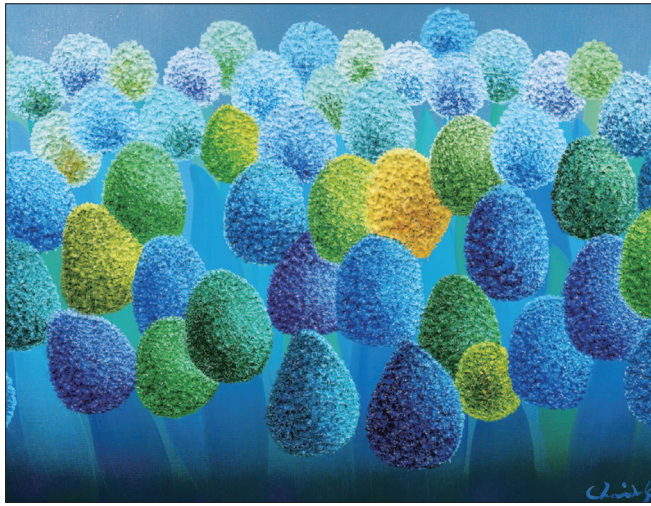
그는 고회를 넘겼지만 요즘도 청년처럼 작업을 한다. 별 다른 일 없으면 작업실에서 작품 구상을 하거나 작업을 하면서 일상을 보낸다. 그의 작업실은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무안요를 끼고 15번길로 살짝 꺾어 접어들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즐기게 파꽃 작업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또 다른 모색으로 시도했던. 파꽃과 듀엣처럼 작업하고자 했던 맥문동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그는 다시 파꽃 작업에만 집중할 계획



연작 ‘파꽃-그 자유로움에 대하여’



연작 ‘파꽃-그 자유로움에 대하여’



연작 ‘파꽃-그 자유로움에 대하여’

이다.

이번 개인전은 서른세번째로 그에게 각별한 자리다. 홍익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지 50년을 맞는 해라고 한다. 전시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의거리 이화갤러리에서 ‘파꽃-그

자유로움에 대하여’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출품작은 100호와 50호, 30호 등 20여점. 이에 앞서 작가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소재 G&J갤러리에서 성형리 전시를 연 바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여성필이 들려주는 ‘브람스 하모니’

문체부 지역 대표 예술단체 선정…첫 무대 ‘고전적 피아노’ 15일 광주여당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후원하는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에 선정된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가 ‘브람스, 창작의 여름’ 시리즈 공연을 4월부터 시작한다.

시리즈 첫 순서로 ‘고전적 피아노’를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에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브람스, 창작의 여름’ 시리즈는 독일 작곡가

브람스가 유럽의 아름다운 여러도시에서 주로 여름에 작곡한 곡들로 꾸며진다. 국내외 왕성한 연주활동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박승유 지휘자(양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를 초청해 브람스의 ‘하이드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라 단조’를 들려준다.

1999년 5월 창단한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

트라는 창단 후 550여회 공연을 해온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빛고를시 민문화관,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장 상주 단체로 활동했다. 2010년 다문화음악학교를 개설해 다문화M오케스트라를 육성했으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과 2019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 예술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광주 고려인마을과 다문화음악학교에 기부할 계획이다. 차기 공연은 ‘브람스, 창작의 여름’ 시리즈 2 ‘낭만적 여름’으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브람스, 창작의 여름’ 시리즈 공연 첫번째 무대를 오는 15일 연다.

로 오는 5월 8일 오후 7시 30분에 빛고를시민문화관 무대에 올린다. 이어 6월 12일 세번째 무대 ‘자유롭지만 행복한 여름’을 갖는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가로 초·중·고·대학생과 경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은 무료 초대한다. 입장료는 1만원.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사이판·티니안에 ‘한국 역사 안내서’
송혜교·서경덕 “日 징용 역사 알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배우 송혜교와 함께 미국 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및 티니안 섬에 한국 역사 안내서를 기증한다고 8일 밝혔다.

서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주말 사이판과 티니안을 다녀왔다”며 “그저 관광지로만 알려진 곳에서 우리 역사를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의 역사를 알리는 한국어 안내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희생당한 한국인을 기리는 추모비가 있다.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만든 곳”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또 “일본 군사기지가 있었던 티니안에는 한국인 징용자가 많았다”며 “티니안에서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거나 자살을 강요당해 희생된 한국인만 5000여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방면이 해외에 있는 역사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번 기증을 시작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두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서 교수가 기획하고 송혜교가 후원했다. 연합뉴스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국제 공모

亞문화전당 ‘지능시대’ 주제…내달 30일까지 창·제작자 8개팀 선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은 융·복합 창·제작 지원 프로그램인 ‘2025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에 참여할 국내외 창·제작자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ACC는 2015년 개관 이후 올해로 10년째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창·제작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다분야 전문가들의 미래지향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의 개발과 제작, 시연을 지원한다.

올해 주제는 ‘지능시대’ (The Intelligence Age)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지능시대를 상상하며 데이터 세계 속 제3의 지능과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모집 분야는 아트&테크놀로지(4팀), 키네틱 미디어(1팀), 오디오비주얼(1팀), 믹스드 리얼리티(1팀), 이머시브 사운드(1팀) 등 5개로, 분야에 따라 각 2000~3000만원의 프로젝트비를 지

급한다.

이번 공모는 주제에 부합하면서 아트·테크놀로지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획력과 관련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예술가, 전문가, 연구자, 엔지니어 등 창·제작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CC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6월 8개 팀(혹은 개인)을 최종 선발한다. 참여자들은 오는 8월부터 4개월간 주제 및 기술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창·제작스튜디오 공간과 설비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특히 올해는 레이저, 조명, 프로젝션 맵핑 등 키네틱 미디어 프로젝트 실험이 가능한 복합스튜디오와 4면 리어 스크린, 모션 캡처 카메라 시스템과 64채널 입체음향 시스템을 갖춘 미디어스튜디오에서 오디오비주얼, 믹스드 리얼리티, 이머시브 사운드 등 다양한 아트·테크놀로지 프로젝트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은 ACC 개관 10주년을 오는 11월 25일부터 2주간 ACC 창·제작스튜디오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25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에 참여할 국내외 창·제작자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서 전시로 만날 수 있으며, 퍼포먼스, 프레젠테이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지원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는 지난 10년간 전세계 창의적인 인재들의 융·복합 창·제작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실험적인 콘텐츠를 선보일 창·제작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CULTURE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지구 너머 세계 ‘인류 우주탐사기’

국립광주과학관 ‘우주과학 특별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장구)은 인류가 우주를 탐구해 온 여정과 극복 과정을 보여주는 우주과학 특별전 ‘지구 너머의 세계’를 지난 8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과천과학관의 2024년 브랜드 기획전 순회전시로, ‘보이는 빛·보이지 않는 빛’, ‘보이지 않는 세계’, ‘우주놀이터’,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 등 총 4개의 존으로 구성된다.

1존 ‘보이는 빛·보이지 않는 빛’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빛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알아보며 빛을 관측하는 주요 망원경에 대해 설명한다.

2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블랙홀, 암흑물질, 중성미자 등 6개 주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해 왔는지에 대해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3존 ‘우주놀이터’는 우주 스케치 월, 블록 우주선 조립체험, 우주 직소 퍼즐 등 우주와 관련된 다채로운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4존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에서는 심우주에서 우리가 사는 태양계까지 다양한 우주로의 도전을 연출한 전시품과 보이저호 모형을 포함해 골든레코드 자료와 내용들을 탐구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문기현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우주 개발과 기술 등에 대해 탐구하며 고민해 보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광주-영웨일즈 신진예술 교류

양림미술관거리협, 9일·6월 워크숍

광주 양림동과 영국 웨일즈 카디프에서 신진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로컬 리서치를 기반으로 그룹 창작 활동을 하고, 구체적인 협력 전시 방안을 도출하는 국제 교류 워크숍이 9일(광주 양림동)과 6월 9일(영국 웨일즈 카디프) 등 두 도시에 열린다.

지난 1월 광주 양림동 기반의 양림미술관거리협 의체(대표 이한호)와 영국 IVAE(International Visual Arts Exchange)는 양 국가의 시각예술 분야 신진 아티스트 및 기획자 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국제 교류 워크숍은 상호 교류를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서 신진 예술가와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예술 실습과 기획 전략에 대한 멘토링 및 워크숍을 통해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향후 두 지역의 자연 및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장소특정형(Site-Specific)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양국에서 공동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컬 리서치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 교류 워크숍의 아트디렉터는 호랑가시나무창작소의 정현기 대표와 영국 버밍엄 대학교 수이자 IVAE 총괄디렉터인 지양 지예홍 교수가 맡았다. 이밖에 있을 광주 워크숍에서는 아트디렉터의 강연과 장소특정형 작품을 설치할 양림동의 대상 장소를 방문한 후 그룹 워크숍을 통해 특정 장소 기반 작품 제작을 위한 스케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6월 영국 웨일즈에서 열린 워크숍은 전시 관람 및 작가 미팅, 광주 워크숍 결과 공유, 2026년도 기획 워크숍 사업 구성으로 진행된다.

광주 워크숍 참가자는 광주의 신진·청년 작가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됐고, 국내외 예술인 및 기획자 40명이 참여한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인 만큼, 상대 국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화상 중계와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사후 협력 사례를 홍보할 수 있는 성과 자료집과 아카이브 전시가 추진된다.

이번 국제 교류 사업을 주관하는 양림미술관거리협의체는 마을 주도형 골목 미술 축제인 ‘양림골목비엔날레’를 통해 지역 내 작가의 활동을 지지하고 시민들의 예술 향유를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협약 파트너사인 영국 IVAE(International Visual Arts Exchange)는 동서양 간의 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예술 실험의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는 비영리 예술 기관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